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39호

2025년 3월 2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주일	토 : 오후 4:00, 오후 7: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연령회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오늘의 미사

연중 제8주일

<p>▶ 입당송 :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p> <p>▶ 1독서 : 집회서 27,4-7</p> <p>▶ 화답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즐거도 하옵니다.</p>	<p>▶ 2독서 : 코린토 1서 15,54-58</p> <p>◎ 알렐루야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도록 너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녀라.</p> <p>◎ 알렐루야</p> <p>▶ 복음 : 루카 6,39-45</p>
<p>▶ 영성체송 :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찬양하리이다.</p>	

- ①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없음 : 3월 16일 (일)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 ② 매월 셋째 주(일) 2시30분 미사는 마우이 공동체입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고해성사는 미사 전에 고해소에서 합니다.
- ④ 미사 참석 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 ⑤ 3월 봉성체 안내
3월 봉성체는 3월 20일(목, 오전)에 서쪽지역 3월 21일(금, 오후)에 동쪽지역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목공지

① 십자가의 길 안내

- ※ 기간: 3월 9일 - 4월 18일(사순시기) 교중미사 전 9시 40분 이 시간 외에도 모든 주일 미사 전(새벽미사는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시행됩니다.
- ※ 4월 18일(주님 수난 성금요일) 수난 예식 전 오후 6시



사목위원회

② 전례부 공지 사항

3월 5일(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사순기시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은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이 있습니다.

※ 작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성한 성지 가지는 3월 2일(일)까지 사무실이나 미사예물 봉사자에게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의 수요일 미사 시간 안내 : 3월 5일(수) 저녁 7시

③ 십자가의 길 분과 단체 담당(준비물: 기도서)



사목위원회

3월 9일	사순 제 1주일	전례분과
3월 16일	사순 제 2주일	명도회
3월 23일	사순 제 3주일	시설분과
3월 30일	사순 제 4주일	청소년분과
4월 6일	사순 제 5주일	홍보분과
4월 13일	주님 수난 성지주일	교육분과
4월 18일	성 금요일	선교분과

① 성령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3월 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③ 다락방 모임 안내

일시: 3월 9일(일) 모임 안내
장소: 컨퍼런스 룸

② 상임위원회 모임 안내

일시: 3월 2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④ 예비자 선발예식 준비 모임 안내

일시: 3월 9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대부, 대모 참석 바랍니다.



구역 및 단체

⑤ 성경의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누며 부모로서의 고민과 기쁨을 그 말씀 안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복음 나누기 모임을 가지려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형제 자매님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허은혜 레지나 :401-871-2681

① 주일 헌금 카드(초록색 봉투) 공지

성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록색 헌금 봉투가 많이 분실이 된 상태입니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헌금 봉투가 있으면 성당에 반납하길 부탁드립니다.

기타공지



2차 헌금

3월 29/30 Catholic Relief Service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월 22일 ~ 23일 : \$11,328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330
	주일헌금	교무금	2차 헌금	특별헌금		
	\$3,624	\$6,680		\$1,024		

옥 치과	동양관광여행사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New York Life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케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알아봅시다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재의 수요일’은 사순 제1주일 전(前)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 교회는 미사 중에 참회의 상징으로 재를 축복하여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행하는 데서 재의 수요일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재의 수요일이 사순시기 첫날로 성립된 시기는 교황 대 그레고리우스 1세(재위 590-604년)때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재위 1563-1585년)가 이날에 전 세계교회가 단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규정했습니다.

▲ 재의 수요일 (Carl Spitzweg)

‘재’는 유대인들의 참회표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을 때 재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자루 옷을 찢는 참회예식을 거행했습니다(2사무 13,19; 유딧 4,11. 4,15. 9,1; 에스 4,1; 1마카 3,47. 4,39 참조). 우리는 이런 풍습을 신약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다, 너 코라진아! 불행하다, 너 베싸이다야! 사실 너희 가운데서 행한 기적들을 띠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자루와 재를 뒤집어쓰고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루카 10,13; 마태11,21) 이런 유대인들의 참회표지를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인 것이 바로 재의 수요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목요일에 공적인 참회자들의 머리에 재를 얹어주고, 그들의 참회 예복에 그 재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성목요일에 공적 참회자를 받아들이는 예식이 사라지면서, 이런 참회의 표지도 함께 잊히게 됩니다.(중략) 그런데 베네벤토 공의회보다 약 100년이 앞선 시기에, 영국의 대수도원장이자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인섬(Eynsham)의 엘프리쿠스(Aelfricus, 955-1010년)는 자신의 저서 <성인들의 생애>(Lives of Saints)에서 이미 모든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이 머리에 재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서 참회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은 무명뿔을 몸에 걸치고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린다고 증언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로부터 참회하기 위해 그렇게 합시다.” 재의 수요일 ‘재를 바르는 예식’ 그 자체는 준성사로서 교회법 제844조에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한 누구에게든, 그가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축복은 우선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금지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비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줄 수 있다”(교회법 제1170조). 또한 이 예식은 미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에서 우리는 사제에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창세 3,19) 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개인적인 슬픔과 비애, 그리고 참회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이 상징은 우리의 현세의 삶이 허무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현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삶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삶을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현세의 삶을 더욱 충실히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s://www.catholicnews.co.kr>)

<p>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p> <p>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p>

<p>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p> <p>상속, 절세, 롱텀케어, 생명보험, 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p>

<p>뷰티터치(BEAUTY TOUCH)</p> <p>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808)271-4802</p>
--

<p>쥬에이스원글로벌 (사슴태반 전문기업)</p> <p>“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p>

<p>Ginzawon(긴자원)</p> <p>Korean B.B.Q(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p>

<p>묘지매매</p> <p>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p>

이매임 데레사

성인명	이매임 데레사 (李梅任 Teresa)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788-1839년

성녀 이매임 데레사(Teresia, 또는 데레사)는 어느 양반 집에서 태어났고, 순교자인 이영희 막달레나(Magdalena)와 이정희 바르바라(Barbara)의 고모이다. 외인 시절에 결혼한 이매임은 스무 살에 과부가 되어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같은 동리의 한 여교우로부터 성교회를 알고 입교하였다. 이때부터 집안 식구들에게도 열심히 전교하였다. 그래서 이영희 막달레나의 어머니가 우선 입교하였고, 또한 어머니는 딸들을 입교하게 되었다. 이매임은 판공성사 때가 되면 올케 허계임과 함께 상경하여 성사를 보곤 하였다.

기해년에 들어서면서 박해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때 남명혁, 이광헌 등의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그러자 함께 모였던 김성임, 김 루치아(Lucia), 허 막달레나, 이 막달레나, 이 바르바라 등 6명은 천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로 하고 자수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4월 11일에 그들은 자수하였으나 포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포장은 기가 막혀서 이와 같이 물었다. “너희들은 천주교 도리

가 옳은 것이라고 믿느냐?” “물론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졌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배교하고 천주교 책을 바쳐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배교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리 트는 형벌을 4차례를 당하여도 굴복하지 않자 그들을 포청으로 보냈다.

5일 후 포장이 다시 불러내어 “너희들이 당한 형벌과 옥중의 무서움이 너희들의 혼미함을 깨우치지 못하였을까?” “저희들더러 배교하라고 권하시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뿐입니다. 저희들이 자수를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를 배반하라고 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올시다. 참된 교우는 천주를 위하여 살고 천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나라법이 저희들을 사형에 처한다면 즐겨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를 배반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형조로 이송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1839년 7월 20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을 받고 치명하였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 (808) 798-5100
 Email: 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 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